하루살이 제사장의 위임식

(레8:1~36)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3.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4.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5.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루살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루살이 제사장의 위임식'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십자가 생활화가 선민의 절대적인 표식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어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에 가서 있게 됩니다. 애인이 뉴욕에 가 있다면 늘 애인이 가 있는 뉴욕을 생각하는데 이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이고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가 계시는 하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애인을 사랑하므로 애인이 가 있는 뉴욕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이 구름위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사요, 궁극적 관심의 자리를 차지하시므로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변함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존재하는데 구름위의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구름아래서의 우리 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지 하루를 살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어제 일에 매어있지도 않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도 않고, 바로 지금 내 위에 계시는 구름위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마음의 시선이 늘 하늘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못 보고 어제를 볼 수가 없고 오늘 하루만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선민의 삶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십자가로 나를 죽이는 제사적 행동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5대 제사를 충족하게 되고, 십자가 생활화를 24시간 하는 선민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인제사장이라는 교리 때문에 제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대로 5대 제사를 집행

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십자가사건이 있은 뒤로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가 선민으로 십자가를 생활화하다 보니 5대 제사의 의미가 충족되고 그 의미를 충족시키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루밖에는 못 산다는 것이지요. 임기가 하루인 하루살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갑니다.

그 제사장의 위임식 얘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위임을 한 번 받으면 평생 동안 제사장으로 지내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십자가복음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십자가 생활화 특성상 임기가 하루뿐인 제사장이고, 그것은 매일매일 5대 제사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제사장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 때문에라도 날마다 위임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임식이 없으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게 아니므로 이 위임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님의 위임식이나 다른 직분자의 취임식이나 위임식 같은 것은 세리모니의 성격이 강해요.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도 선서를 합니다만 역시 형식의 의미가 강한데 제사장의 위임식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복잡하게 나옵니다. 정결예식이 있고 복잡하고 화려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예식이 나오고 관유인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는 의식이 나오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의 과정이 끝마쳐지는데 똑같은 과정을 이레 동안 반복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원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탁월한 소질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은 제사장 적합화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라는 직위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과정이 이레 동안 반복됩니다.

정결예식으로 물두멍에서 씻고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집행해야 될 모든 기구들인 분향단이나 떡 상이나 등대나 물두멍이나 번제단이나 손으로 만지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런 의식과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의식을 곁들여서 적합화 시키는데 적응되고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임기가 하루인 우리 같은 제사장들에게는 이 위임식이 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죽는 것이므로 위임식이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하루살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마치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삶으로 온전한 삶이 되고 한마디로 끝내주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임식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 적합화의 과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자아의식의 과정이 있고, 그 자아의식에 따라주는 마음상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아

의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될 때 쓴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던 돈을 다 뽑겠다는 마음으로 검은 돈을 좋아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아의식에 합당한 마음상태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던 어떤 지인은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얘기가 자기는 돈을 벌겠다고 합니다. 돈을 벌겠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사업을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검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합니다. 아니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 왜 검사가 되겠다고 합니까? 이것은 검사라는 자아의식과 거기에 맞는 마음상태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범인을 색출해내고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마음상태와 정의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검사의 자아의식에 돈 사랑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루를 산다고 할 때 제사장의 자아의식이 있고 자아의식을 뒷받침할 만한 마음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적합화 과정으로 첫 번째 자아의식의 과정에서 정결예식과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과정과 기름부음인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이 만지게 되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과정으로 자아의식을 통한 자아의식차원에서의 제사장 적합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상태의 적합화 과정에서는 바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로 드려지는데 번제에는 당연히 소제가 곁들여집니다. 제사의 과정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얘기가 되었던 것이지만 이것이 두 번째 적합화의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적합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상태가 제사장다운 마음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의식에서의 적합화 과정을 살펴봅니다.
정결예식으로 물두멍의 물로 우선 몸을 씻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소매치기하던 사람이 손을 씻는 것으로 소매치기의 삶을 멈춘다는 것이고,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에서 손을 씻었다면 도박을 멈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까지의 삶에서 손을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에서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고 추구하고 성취하면서 살았는데 손을 씻는 것으로 이제 내 기쁨은 오직 하늘에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 부르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으로부터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손들이 다 형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돈이 없어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원으로 믿는 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돈, 돈 하는 것은 돈을 믿는 것이고 돈이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 돈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로 그 불상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불상에 절하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은 돈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우상들도 사람들에게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은 이제는 기쁨거리가 이 땅에는 없고 내 기쁨은 하늘에 있음을 의식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하는데 이제 어떤 삶이 되는가를 내 스스로 자각 하는 것으로 운명적으로 이제는 나에게 이 땅에서는 기쁨거리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부터 다 도망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붙어있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고 하늘에서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뜻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적합화(adaptation)’는 ‘순응한다. 수용한다.’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기뻐하려고 하다가도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해야 하고, 돈이 없어서 슬퍼지려고 할 때 이건 아니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정결예식으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의복은 말씀드린 대로 신분과 위치를 말하는데 이 땅에서의 신분과 위치는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언제나 이 땅에서 이 몸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선민의 위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게 됩니다. 회사에서 부장과 과장 사이에 차장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남편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관계를 맺는 사람에 따라서 아버지로 아들로 선생으로 목사로 교인으로 갖가지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자아의식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더 이상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결심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상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내 유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 상태와는 별도로 내 의식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충족시키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여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은 앞의 정결예식에서 이 땅에서는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손을 씻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것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기쁨을 얻을 것도 없는 것은 구름위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마음상태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아내를 만나면 남

편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만나고, 자녀들을 만난다면 아버지의 자리인데 내용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사이에서의 제사장은 회사에서 내가 과장을 만날 때 부장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대 제사의 제사장으로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선민의 화목인 것처럼 내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여 있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선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식을 갖고 하루를 출발할 때 이 땅에서는 내 기쁨이 없고 내 기쁨은 하늘에만 있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여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된다는 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름부음이 있어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에 기름을 부어서 네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네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 입는 옷까지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까지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십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제사장으로 살아 갈 때 회사의 물건도 만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고 어떻게 기름부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의 정결예식과 두 번째 따라왔던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은 남아 있지만 이상하게 '나'라고 하는 인격이 빠져나가면 내 삶의 현장에 있는 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책없게 내 삶의 현장에 끼어들어서 기쁨을 얻으려 하고 만족을 얻으려 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앞의 두 가지 의식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상태가 뒤따르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의 만물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내 눈에 다 보입니다. 삼성에 다니는 회사원이라면 그 회사에서 정결예식과 제사장 의복의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 의식이 투철해지기 시작하면 삼성에 있는 모든 것과 이건희 씨의 사적재산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만질 때 자의적으로 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해주시는 대로 만지고 규정을 따라서 만지면 됩니다. 그 현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시하시는 규정과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빠지고 보면 빌게이츠의 재산이 빌게이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눅12:16-21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곳간에 곡식을 가득 넣고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

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못 보는데 예수님은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사람을 만날 때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당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시면서 당신은 빠져나가서 아버지 옆에 계시니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부자가 모아 놓은 곳간의 곡식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십니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에 보이는 겁니다.

이 정결예식과 예복 그리고 기름부음의 관유 의식이 없으면 제사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의식이 있고 마음이 따라주어야 제사장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라준다'라는 것은 실제로 마음이 내 의식을 따라 땅에서는 기쁨을 찾지 않겠다고 손을 씻었으면 그 의식만큼 하늘에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바로 십자가 생활화의 번제, 속죄제, 회목제의 삶입니다. 속죄제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죗값을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인데 죗값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속죄제가 먼저 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번제, 마음의 지성소 안에 이 땅의 것을 집어넣고 그것이 기쁨의 이유인 줄 알고 살려고 하는 성향이 번제를 통해서 불살라져야 하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땅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그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단계로 화목제가 마지막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상태가 준비돼야 하는데 이게 날마다 반복돼야 합니다. 위임식에서 일곱 번을 반복했잖아요. 이레 동안 매일 반복하는 것은 위임식의 절차가 삶에서 아주 뼈에 박혀버린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일곱 가지 성공하는 습관을 익힐 것이 아니라 이 위임식을 익히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정결예식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내 기쁨은 하늘에만 있고 이것이 운명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를까 믿기를 포기하면 모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있는 제사장으로 이제 내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입으로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기도라도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모든 현장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규정을 따라서만 손 댈 것은 손대고 손 뗄 것은 손 떼겠다는 것이 관유인 기름부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사장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려면 내 마음상태가 준비가 되어야 하

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어제의 모든 죗값을 속죄제인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습니다. 자꾸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오고 자식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부흥이 들어오고 예배당 건축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번제를 통해서 죽습니다.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이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아버지를 받아들이시듯이 나도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서 충족되고 만족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이 마음상태로 제사장 의식이 충분히 뒤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나가서 살면 어디가나 제사장인데 임기는 단 하루로 그 다음 날이면 또 위임식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반복하고 나가서 또 하루 살고 하루살이 제사장으로 그 다음날 또 다시 위임식을 하고 이게 우리의 운명적인 삶이요, 우리의 팔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선민입니다. 선민이라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반복하는 자들이고 십자가 생활화를 반복하며 사는 의미를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루살이 제사장으로서 오늘 본문이 뜻하는 위임식의 의미를 날마다 반복하며 사시는 멋쟁이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제사장으로서의 의식을 갖춤으로서 제사장으로 적합화 되게 하시고 그 의식에 뒤따르는 마음상태를 갖춤으로서 또한 온전한 적합화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멋진 제사장으로서 하루하루 사는 하루살이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